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7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0월 30일 (음력 9월 11일) 월요일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사업계획 재검토

광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주민반발이 일자 첨단 3지구 개발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9일 광주시와 첨단 3지구 개발 폐기물·하수 처리 시설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윤정현 광주시장과 대책위는 지난 27일 면담을 갖고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협의했다.

폐기물·하수 처리 시설 광산구 건립 계획 ‘반발 여론’

광주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 열고 다양한 의견 수렴”

광주시는 광산구 비아동, 북구 월출·오룡동, 전남 장성군 남면 일대 380만여㎡를 2025년까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사업 계획대로 광산구에 폐기물·하수 처리 시설이 설치될 경우 광산구 주민 7만3000여명이 유해 물질과 악취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예정부지 반경 1km 내에는 유아교육시설·초중학교·요양원·아파트·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건강·생활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또 광산구에만 폐기물 처리 시설과 산업용지 일부만 예정한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며 윤 시장에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시장은 면담에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 집담회를 열어 광산구·북구·장성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산구 비아동, 첨단 1·2동 주민 22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광주시장 앞에서 열 계획이었던 집회를 보류했다.

다만, 폐기물·하수 처리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와 서명 운동, 홍보물 배포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첨단 3지구에는 인공 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국립 심혈관질환센터, 의료용 생체 소재 부품산업 집적화 단지 등 연구·의료·산업 인프라가 구축된다. 주거·상업시설도 개발된다.

광주시는 개발 사업과 관련된 환경 평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북구·광산구의회 장성군의회와 협의한다.

이후 국토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계획안을 최종 확정된 뒤 시공사 선정과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예비 사업 시행지는 광주시도 시공사다.

시 관계자는 “광산구 주민들도 연구개발특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계획을 살펴줬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촛불 1주년, 사회대개혁 요구 광주시민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촛불 혁명 1주년 광주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시구 보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시구지로 기을 아구 미운데 오른다. KBO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2017 타이거뱅크 KBO 한국시리즈 2차전 두산 베어스-KIA 타이거즈 경기의 시구자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시구는 2001년 이만섭, 2003년 박관용, 2005년 김원기 전 국회의장에 이어 이번이 4번째가 된다.

정 의원은 포로아구 열성 팬으로 알려졌다. 야구기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유주가 부른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전인 28일 개막전이 열린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시구를 했다. 이로써 하루 시구를 두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시구를 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세균



문재인

광주·전남농협 대출 연체율 상승세... ‘리빙 푸어’ 증가

예금도 전체 예금액 10% 불과

대출 원리금과 이자 연체 등 빚 때문에 곤란을 겪는 리빙 푸어가 광주·전남지역에서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농협 전체 연체율의 하락 추세 속에서도 광주·전남지역 농협 연체

율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전체 연체율(1개월 이상)은 2015년 0.71%, 2016년 0.59%, 2017년 9월까지 0.52%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광주·전남의 연체율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남은 2015년 0.17%, 2016년 0.35%, 2017년 9월까지 0.47%를 기록했으며, 광주는 2015년 0.33%, 2016년 0.62%, 2017년 9월까지 0.58%로 집계됐다.

예금의 경우도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은 농협 전체 예금액의 10% 수준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지역이 농협 전체 예금액의 22%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영·호남 격차가 2배 이상 나타나고 있다.

황 의원은 “1개월 이상 연체율이 상승 추세라는 것은 그만큼 일거리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득이 적어져서 현금이 잘 들지 않아 생기는 것”이라며 “농협이 정부 방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을 할 때 금융 취약계층이 많은 호남지역에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규 기자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